

“ 윤리 중 윤리 ”

■ 이종윤 원로목사

이 세상에서 무엇이든 자기 홀로 독점하겠다는 것은 좋지 않다. 심지어 아내를 독점하겠다는 이마저도 현대적이지 못한 이기주의자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터에 기업을 독점하려는 재벌이나 권력을 한 손에 움켜쥐고 흔들겠다는 독재자는 더욱 비난의 대상이 된다.

윤리는 도덕과 다르다. 도덕은 시공에 따라 다를 수가 있으나 윤리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므로 언제 어디서나 지켜져야 한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5계명은 윤리 중 윤리라 할 수 있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말은 낡은 세대의 가치 기준쯤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들이 있다 해도 여전히 약속 있는 첫계명으로 우리가 받아야 한다.

첫계명이란 으뜸 또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라는 말이다. 성경이 가정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5계명은 살인하지 말라(6계), 간음하지 말라(7계), 도둑질하지 말라(8계), 거짓 증거하지 말라(9계),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10계)는 모든 계명들 즉 남의 가정을 파괴시키지 말라는 것과 연결된 것이다.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 가정이 무시되고 있다. 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 말씀에서 일부일처제도와 가정의 기본단위가 제시된다. 부모나 자식 교육 때문에 이혼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비성경적이다. 부부는 한 몸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문화 명령을 함께 이루어야 한다.

자녀들은 주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은 말세의 고통하는 때에 일어날 악이라고 성경은 증언한다.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되 주안에서 하라 하셨다.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옳은 것이라 하셨으니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성도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다. 그 순종은 굴종이나 맹종과 달리 사랑과 감사와 존경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어야 한다. 순종이 의무라면 공경은 순종을 산출하는 덕성이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으나 공경하는 마음은 같다. 공경은 무겁게 여기는 심정으로 부모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않고 받드는 것이다.

하나님께는 절대순종을 해야 하지만 부모에게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할 때 순종할 수 없다. 부모보다 예수님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가 범죄를 강요할 때 그 요구를 따를 수 없다. 자녀들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서도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주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것은 주님께 하듯 순종하라는 것이다. 심지어 존경받을 수 없는 자리에 부모가 있다 해도 순종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하나님 중심·성경 중심·교회 중심


앞면에서 계속

이처럼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한다.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은 부모를 저주하거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경 받을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하고 자녀로 하여금 부모로 인해 낙심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랑과 격려를 하되 책망도 해야 한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매를 아끼면 자식은 망한다는 속담을 즐겨 사용했다. 그러나 회초리 옆에 사과를 놓으라 했다. 상도 주고 격려도 하는 것이 부모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양공급을 하듯이 인격을 키워줘야 한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린 익명의 어머니 같은 이들이 이 나라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 공경 받는 부모, 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한다.

－한국장로신문 [1367호] 2013년 5월 18일에서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astor: David John]	
* Call to Worship	John 4:24	Pasto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Pastor David John
Hymn	36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tthew 1 :1-25	Pasto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astor
Anthem		Congregation
Sermon	“Genealogy & Birth of Christ”	Pastor
* Hymn	242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p>우리의 비전 (vision)</p>	<p>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p> <p>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p> <p>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p>	<p>서울교회 QR코드</p>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p> <p>교육목사 윤누가</p> <p>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p> <p>신 교 사 강아름주하나, 전광해(서아시아), 이은준강해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프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울박정민(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예복(인도), 정상진홍성일(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후쿠야마 탕 켈 코 카 마이 랑 사무알 레이 난 쌍 찬다 사우 키움 랑 호라 라리 벤 비에 마우 차 켄우 미카엘 미안파 필리몬, 프로산뜨, 수레시 수바식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쁘도 보디소뜨 린쯔 수만준 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군선교)</p>		

	<p>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p> <p>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p> <p>SEOUL PRESBYTERIAN CHURCH</p> <p>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p> <p>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 노 철 Park, No Cheol</p> <p>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p> <p>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p>	
--	---	---

“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

■ 수 24:14-15, 행 27:24-25

국기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또는 사회조직이든 결단을 해야 하는 때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여기고 삼겨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믿노라

요즈음 나라와 사회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끄럽습니까? 이때마다 우리는 “나와 내 조국 대한민국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는 결단과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와 눈은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하는 모습을 돌아보실 겁니다. 여호와와 귀는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어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국제적으로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와 부존자원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풍족한 삶을 누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뽀박하던 사도 바울은 회심함으로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유훬 당하고, 고소당하다가 마침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바울이 탄 배가 광풍 가운데 휩싸이며 배에 함께 탄 276명의 사람은 구원의 여명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행 27:20). 그러나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항해하는 자 모두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를 믿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행 27:25).고 선포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이나 교회나 불시에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원치 않는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새로운 도전이 없었다면 성공과 실패의 기회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1945년 8월15일, 일본 천황이 항복 제2차 세계대전은 종전되었고 작은 나라들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4 개의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었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만 아직도 분단 상태인데 그것도 모자라 북한은 수시로 핵과 폭탄으로 전 세계에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시작 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 될 그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모든 나라는 여호와께 속해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간 포로 생활을 하던 중 느닷없이 조국으로 귀환의 은혜를 베풀어주신 것처럼 오래지 않은 때에 우리들도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는 환희의 고백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와 백성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회는 한국교회에 큰 본을 보여주므로 교계와 한국교회가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과 젊은 후배들을 믿어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혹시나 넘어질까 염려하고 격려해주면서 한국교회에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 왔고, 한국교회의 지킴이가 되었고, 돌보미의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서울교회를 다시 불러 주시고, 돌이켜 주시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에게는 편안함과 안락함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힘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기도와 간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고, 솔로몬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병들어 죽어 가는 히스기야의 통환의 기도도 들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와 말씀이나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렘 29:11).

맺는 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경청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과 분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지식보다는 지혜입니다. 돈보다는 정직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는 영원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냇물에도 때때러가는 모래 같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굳건하게 서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주 이광순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장석남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서준권 목사	오치열 장로

오후 5시 · 인도: 서준권 목사, 설교: 이종윤 원로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29:1-2 인 도 자
 찬 송 250(182) 다 함 께
 기 도 정현구 집사
 성 경 계 7:13-1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대각성" 설 교 자
 * 찬 송 526(316) 다 함 께
 * 축 도 설 교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기 도 선혜영 권사
 성 경 벧전 5:12-14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이 은혜에 굳게 서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 피아니스트: 이경화 · 흥혜란·김양안·박수강

설 교 서준권 목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현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일	
III 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황	박수강	윤주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행 27:24)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호 산 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지난해 성구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전교인 일일 수련회 진행자 모임 / 10일(주) 오후3시30분 202호
2. 선교회, 전도회 9월 월례회 / 10일(주) 오후3시30분 본당
3. 호산나찬양대 야외예배 / 13일(수) 오전10시30분 교회출발(장소-양평)
4. 전교인 일일 수련회 / 16일(토) 오전10시 본당

◆ 알 림

1. 101호 예배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예배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3. 603호 예배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4. 609호 예배
 디아스포라부 : 주일 오후 1시-2시
5.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6. 706호 예배
 영아,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7.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12시30분
8.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9. 의료 상담 / 이종욱(진단검사의학과), 정철웅(외과)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10.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면에서 계속 11. 장종철 목사 소개 연세대 신학과 및 연합신학대학원(B.Th., Th.M.) 스위스 제네바 에큐메니칼 대학원 졸업 미국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M.Div., D.Min.) 감리교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선교대학원장 목회학박사원장 감리교박사원장 감리교목회자 최고지도자연수원 부원장 한국기독교교육학회 회장 현재 감신대는퇴교수로서 대학원에서 교수
--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94명	264명	265명	1,423명	173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9/3)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9월 3일	현금	50,463,000	
"	특별예배비		1,000,000
"	찬양운영비		7,210,000
"	행 사 비		2,774,000
"	경 조 비		520,000
"	출 판 비		270,000
"	소모품비		1,007,000
"	차량유지비		280,200
"	복리후생비		391,280
"	수도광열비		12,820
"	환경유지비		256,000
"	수선유지비		300,800
"	식당운영비		663,000
"	합 계	50,463,000	14,685,100